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5호 2019년 7월 17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이주호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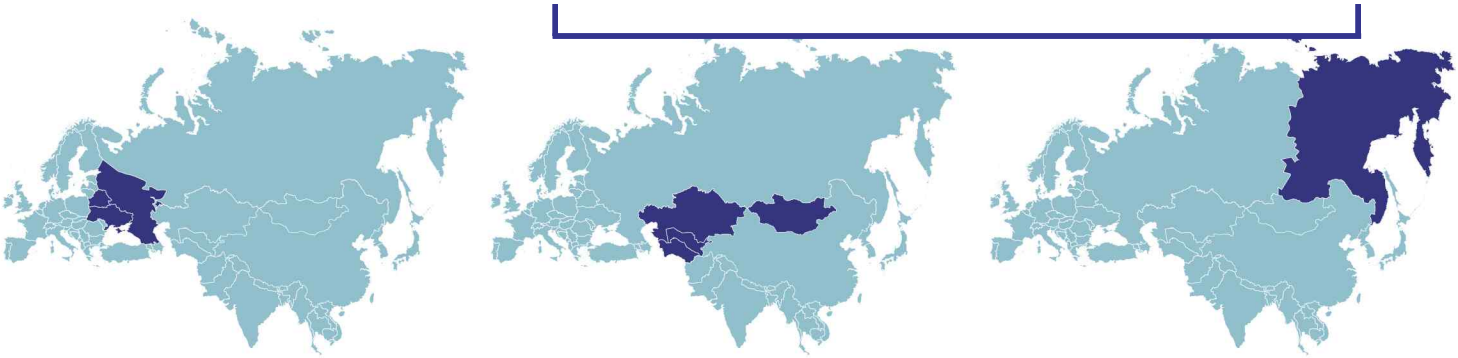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 금년 상반기 러시아 항만 처리물동량 약 2.8% 증가

이슈페이퍼(p.5)
- 제9차 한러극동포럼을 통해 본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 방안

주요 동향(p.11)
- 동부(p.11)
  - 러시아, 서방 제재 불구 독일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
  - 한국 중소기업, 러 블라디보스토크 도로 사업 참여 길 열려
- 중부(p.15)
  -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약속
- 서부(p.17)
  - 우스트 루가 항만, 광물성 비료 환적 위한 대규모 터미널 건설 예정
  - 조지아, 자국 항만 기항 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추진...물동량 증가 도모

주요통계(p.21)
- 2019년 1~5월 러시아 연해주 주요 수출입품 구조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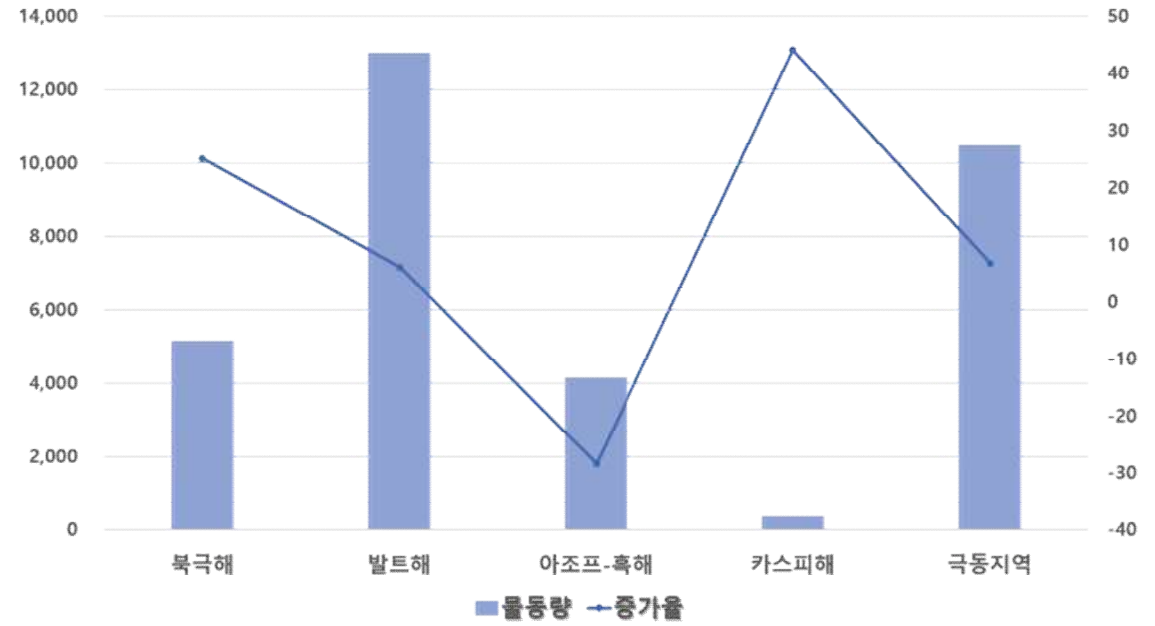
서부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통계로 보는 북방

▌금년 상반기 러시아 항만 처리물동량 약 2.8% 증가

금년 상반기 수역별 항만 물동량 및 증가율

(단위: %, 만 톤)



자료: KMI 작성.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항만 처리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약 4억 904만 톤을 기록함
  - 북극해역 항만의 경우 전년대비 약 25.1% 증가한 약 5,165만톤을 처리했으며 건화물은 약 1,491만 톤(+5.5%), 액체화물 약 3,674만 톤(+35.3%)임
  - 발트해역 항만의 경우 전년대비 약 6.1% 증가해 약 1억 3,006만 톤에 달했으며 건화물은 약 5,550만 톤(+2.6%), 액체화물 약 7,456만 톤(+8.8%)임
  - 아조프-흑해역 항만의 경우 전년대비 약 10.8% 증가한 약 1억 1,889만 톤을 처리함
  - 아조프-흑해에서 처리된 건화물의 경우 전년대비 약 28.3% 감소한 약 4,157

KMI Northern Logistics Trend Report

만톤이며 액체화물은 약 7,732만 톤(+2.7%)임

- 카스피해역의 경우 전년대비 약 44.1% 증가한 약 348만 톤을 처리함
- 카스피해역 건화물은 전년대비 약 7.6% 감소한 약 128만 톤이었으며, 액체화물의 경우 약 213.3% 증가한 약 221만 톤임
- 극동해역 항만은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약 1억 495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 중 건화물은 약 6,646만 톤(+8.6%), 액체화물은 약 3,849만 톤(+3.9%)임

▪ 카스피해 물동량은 타 수역 대비 가장 규모가 작으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극해 수역의 경우 액체화물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유일하게 아조프-흑해 항만의 물동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FESCO 소유항)의 2019년 상반기 처리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12.8% 증가해 약 560만 톤을 기록함

- 일반화물의 경우 전년대비 약 3.5% 증가한 261만 톤이며, 컨테이너 화물은 약 14% 증가한 약 28만 3,800TEU에 달함
- 자동차 및 특수장비의 경우 약 24% 증가한 약 35,000개임
- 또한 올해 상반기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을 이용한 선박은 총 1,044척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함

▪ FESCO가 소유한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은 극동지역의 주요 항만으로 컨테이너, 벌크, 건화물 등을 처리하며 항만의 연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음

- 일반화물 및 석유 제품: 약 500만 톤, 차량: 약 15만 대, 컨테이너: 약 60만 TEU

▪ 극동에 위치한 보스토치니항의 석탄 전용 터미널은 전년대비 약 5.2% 증가한 약 1,292만 톤을 처리함

-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7만 2,971개의 석탄전용화차를 처리했으며 약 289척의 벌크선이 보스토치니항을 이용함
- 이 중 아쿠아마린(Aquamarine) 선박은 약 18만 톤급 선박으로 올해 상반기 보스토치니항을 이용한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며 지난 4월 17일 약 15만 1,600톤의 석탄을 실어 한국으로 운송함

참고자료 : http://portnews.ru/news/279928/(검색일: 2019년 7월 13일)

http://portnews.ru/news/279688/, http://portnews.ru/news/279629/(검색일: 2019년 7월 13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이슈페이퍼

▌제9차 한러극동포럼을 통해 본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 방안

▪ 2019년 6월 4~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9차 한러극동포럼이 개최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한러정책포럼 및 제9차 한러극동포럼은 이틀간 진행되었음
- 한국 측 인사로는 KMI 양창호 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포스코에너지 김주호 그룹장 등이, 러시아 측 인사로는 폴루스마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극동대표, 우챠쉐바 극동개발부 부국장, 마이클 리 극동투자수출청 한국 대표, 흐루쉬체프 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톡 대표 등 약 40여명의 한러 인사가 참석함

▪ 한러정책다이얼로그는 '극동러 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성과와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고위관리급 및 결정권자의 시각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됨

- 본 회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은 지난 9년간 한러극동포럼의 성과로서 한러간 환경, 에너지, 물류, 수산, 북극항로 등 분야별 협력시스템 구축, 한러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꼽았음
-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은 글로벌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 따라 양국간 기술협력, 4차 산업관련 분야 공동 육성 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개발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남북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 중임에 따라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 아젠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음
-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는 한국과 러시아는 농업분야에 있어 MOU를 체결하고 꾸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농업기술 및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은 극동지역이 소비시장과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함

- 한러정책다이얼로그에서 러시아 측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을 위한 조금 더 세심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공통적으로 설명했음
  -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은 거시경제협력보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교통물류회랑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음. 또한 2030년까지 연장된 국토개발 관련 국가프로그램을 올해 9월 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우차셰바 극동투자수출청 부국장은 효과적으로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극동투자수출청 한국대표를 서울로 파견했으며, 현재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의 중임을 밝혔음
  - 쿠릴로바 전략기획청 극동대표는 동방경제포럼, 한러투자협의회 등과 같은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해야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함
  - 브릭 블라디보스톡시의회 의장은 블라디보스톡은 한국관광객이 급증한 결과로 새로운 관광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며, 부산시와 다양한 스포츠·레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음
  - 코로스텔예프 캄차트카경제개발부 장관은 2015년 산업연구원과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 개발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포항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해 도시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힘. 또한 북극항로가 시작되는 새로운 허브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정책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한러정책다이얼로그

자료: KMI

- 6월 5일 초국경 협력시대 극동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9차 한러극동포럼은 △농·수산, △제조업 및 산업단지, △ 물류·북극항로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국경 협력'의 촉진을 통한 상호 호혜의 확대와 지역 경제 통합, 평화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러 협력을 발전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송영길 더민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내용에 따르면 북한과의 관계를 떠나 한러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하는 시점이며, 공급사슬 구축은 축산업, 농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한러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임에 따라 협력을 강화해야함
  - 스타리치코프 국제협력국장이 대독한 코제먀코 연해주 지사의 축사에서는 연해주와 한국 간 협력은 농업 및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분야로까지 발전했으며, 향후 스마트 시티, 의료, 농·수산 가공업 등과 같은 분야로 협력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농수산 분야의 초국경 공급체인 구축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음
  - 에멜류아노프 농바이오연구 센터 극동대표는 '극동러 농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극동지역에서 품종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의 품질기준에 부합해야함에 따라 러시아 기업은 한국 품질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장홍석 KMI 부연구위원은 '극동러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과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음. 장 부연구위원은 식품가공산업의 중심지가 중국 중심 체제에서 베트남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가설을 소개하며, 수산업의 경우, 베트남은 원료 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태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레루힌 극동수산 거래소 대표가 '극동러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본우너가대비 qhvdms 소비자가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시장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해양입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김종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의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 제언' 발표에 따르면 극동지역 중 아무르 지역의 경작지 면적은 한국 전체 경작지 면적과 비슷하지만 곡물엘리베이터 및 가공시설 노후화, 수도시설 부족 등 농업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한국은 발전된 농업기술 및 농기계 러시아에 수출하고, 러시아는 농산물 생산 및 가공해 수출하는 등과 같은 협력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제조업 분야의 초국경 공급체인 구축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총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음

- 우챠셰바 극동북극개발부 부국장은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했고, 아르카디 하바롭스크주 도시계획부 부장은 하바롭스크주와 한국은 아파트 건설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음
- 국토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극동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함. 한국과 러시아는 산업단지가 동의된 정책어젠다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 ①교통 물류 항만 조건 연해주 중심 한국 산단 조성 필요, ②러시아 산업 정책의 기반에서 자유항 입지조건을 고려, ③단순가공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형태로 R&D 유형으로 다각화 필요, ④북한의 변화 대비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러협력 사업을 조성해야함
-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는 극동지역은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에 도달해야함에 따라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통물류시스템 및 인프라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산업연구원 김학기 박사는 국제무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수송 및 통신수단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산업간 연결은 더욱 긴밀해졌다고 설명했음. 가치사슬 경쟁력의 원천은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지식을 상품에 결합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음
- 남북러 협력사업의 성공여부는 국제적 가치사슬이 얼마나 긴밀하게 구축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산업별 가치사슬에 따라 남-북-러 3국간 긴밀히 연계되는 부품 제조업 육성, 운송 등의 공급체인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물류·북극항로 분야의 초국경 공급체인 구축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음
  - 홀로샤 FEMRI 부대표는 '러시아 국제 트랜짓 수송 활성화 목표와 한러 협력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대륙간 물류통합망 연계를 위해서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함.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 내 통합된 디지털물류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천정우 EY모스크바 이사는 한러사업에서 주로 체결되는 양허계약과 PPP는 주정부가 도로 및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제한적임에 따라 개인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해 허가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임. 특히 Project Finance 방식은 프로젝트별로 신용을 판단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러시아 사업 추진 시 가장 많이 사용됨
  - 부로프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 총장은 북극항로는 물류사슬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고유 프로젝트가 아님에 따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물류스트리밍 모델링, 최적화된 운송루트 발굴, 안전항해 시스템 마련, 정보 공유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지성 박사는 '한러 자원 공급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함. 북극항로는 환경·물리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항로 개발 자체로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원개발 등을 통한 화물을 기반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화물 창출을 기반으로 한 NSR 연계 개발 방식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①내륙수로의 이용, ②4차 산업혁명 기술임
  -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내륙을 잇는 러시아 남북 물류루트로 오브강, 예니세이강, 레나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러시아는 급격한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구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산업의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 사회적 합의비용이 적은 테스트베드에 대한 니즈가 있음. 즉, 한-러 간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용의한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제9차 한러극동포럼

자료: KMI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동부권역 주요 동향

▌러시아, 서방 제재 불구 독일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

- 2019년 1분기 독일의 러시아 투자는 작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약 2조 3천억 원(17억 유로)이며 등록된 독일 기업 수는 약 4,500개임
  -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된 미국과 EU(European Union)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있어 러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시사함
  - 러시아에 등록된 독일 기업 수는 EU국에 등록된 기업 수 대비 10배 이상 많은 수준임

- 2014년 이후 러시아 루블화가 약화되면서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독일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오일, 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 러시아는 독일로의 가스 수출량을 약 2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에 독일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
  - 이 외에도 독일 기업은 크고 작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지난 달 한 독일 기업은 러시아에 약 5,000억원(약 4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함

- EC(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EU 국가가 러시아 총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3/4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EU 국가의 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약 400조 원(3,000억 유로)임

▌참고자료 :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russia-remains-a-top-investment-location-for-german-businesses-2019-7-8-4/ (검색일: 2019년 07월 12일)

제95호 2019년 7월 17일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한국 중소기업, 러 블라디보스토크 도로 사업 참여 길 열려

- 한국 중소기업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추진하는 도로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최근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제조하는 한국기업 카리스(Caris)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모색함
  - 카리스는 20여년에 걸친 PVC 산업 내 경험과 지식기반을 토대로 세계 유일의 PVC 도로안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임

- 이날 면담에서 올레그 구메뉵 블라디보스토크시장은 카리스가 생산하는 PVC 가드레일 및 소음방지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연해주 도로정비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함
  - 구매뉵 시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도로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운을 뗀 후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대대적인 도로개보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세계 정상급의 새로운 관련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크다면서 한국은 관련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이웃이며, 이미 성공적으로 공동프로젝트를 수차례 수행했다면서 한국기업 제안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임

- 유철 카리스 대표는 “20년 이상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현재는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협력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카리스는 현재 난간 및 기타 PVC 구조물을 미국, 호주,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음
  - 이날 유 대표는 블라디보스토크시청에서 제품 관련 발표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연해주정부가 블라디보스톡~나호트카~보스토치니항만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재개하며 도로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탄력받고 있음
  - 현재 연해주 내에서 약 29개의 교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12개의 교량 설계작업이 완료될 예정임

- 지역의 숙원사업인 블라디보스토크 순환고속도로 건설 또한 가시화되고 있음
  -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지사는 올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국영기업 아브타도르(Avtodor) 및 주식회사 인프라 베애프(InfraVEB) 대표와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음

참고자료 : https://vladnews.ru/2019-07-12/155101/yuzhnokoreyskie_biznesmeny(검색일: 2019년 7월 13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중부권역 주요 동향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약속

- 지난 7월 15일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올해 국가사회의 경제적 환경 개선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함
  - 토카예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환경 개선의 주요 범주는 카자흐스탄 국내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연간 1,2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함
  - 특히 카자흐스탄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올해 초 임금이 작년 대비 30%가 인상되었음
  - 한편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카자흐스탄 은행과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에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탄약고 폭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 지원하기로 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달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Turkistan) 주 소재 아리스(Arys) 시에서 발생했던 군 탄약고 폭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발언을 함
  - 이와 관련한 안건을 국가 특별위원회와 대통령 행정부, 국가 안전 보장 이사회 등에 제출함으로서 향후 군사 위험시설을 민간인 거주지로부터 멀리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투르키스탄 주에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했음

-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
  - 토카예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제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행정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함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태도와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비판
  -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내 주지사들과 주요 인사들에게 비즈니스 투자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지시함
  - 아울러 국가 내 미사용 토지 및 미등록 토지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여 공시하기로 함
  - 한편 카자흐스탄은 올해 초부터 최대 4.1%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노동생산성을 33%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관광업 및 전자상거래, 운송 물류 부문의 잠재성을 역설하고, 향후 6년 내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약속함

참고자료 : THE ASTANA TIMES (검색일: 2019년 7월 16일)

오상호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우스트 루가 항만, 광물성 비료 환적 위한 대규모 터미널 건설 예정

- 주관사인 Ultramar LLC는 우스트 루가 항만에 대규모 광물성 비료 환적 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라 밝힘
  - 레닌그라드 주 비스티노 지역에 위치한 우스트 루가 항만은 대유럽 수출을 위한 러시아 핵심 항만임
  - 2019년 3월 이 항만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향후 5년간 화물 처리 용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
  - 해당 터미널 건설을 위해 약 3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중 1.7억 불은 외부 조달, 1.3억 불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
  - 2018년 기준 우스트 루가 항만의 총 환적량은 약 1억 톤 수준
  - 건설될 환적 터미널은 연간 1,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관사는 환적 용량을 2,5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 Ulramar LLC 안드레이 대표는 신규 항만을 러시아 철도 인프라와 연결시켜 장기적으로 물동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 밝힘
  - 신규 터미널과 철도를 잇는 루쥐스카야(Luzhskaya)-보스토치나야(Vostochnaya)역이 금년 건설될 예정이며 이후 루쥐스카야(Luzhskaya)-게네랄나야(Generalnaya)역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
  - 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을 통해 포사그로(연간 5~6백만 톤), 울룰첸(200~250만 톤), 애슬론(150만 톤) 등의 회사와 사전 계약을 체결

우스트 루가 항만 위치

자료: Google Maps

참고자료 :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ultramar-_-nakhimichit-_v_ust-luge_novyy_khab.html (검색일: 2019년 06월 25일)

http://logirus.ru/news/transport/ust-luga_namerena_udvoit_gruzooborot-_v_blizhayshuyu_pyatiletku.html (검색일: 2019년 06월 25일)

이호건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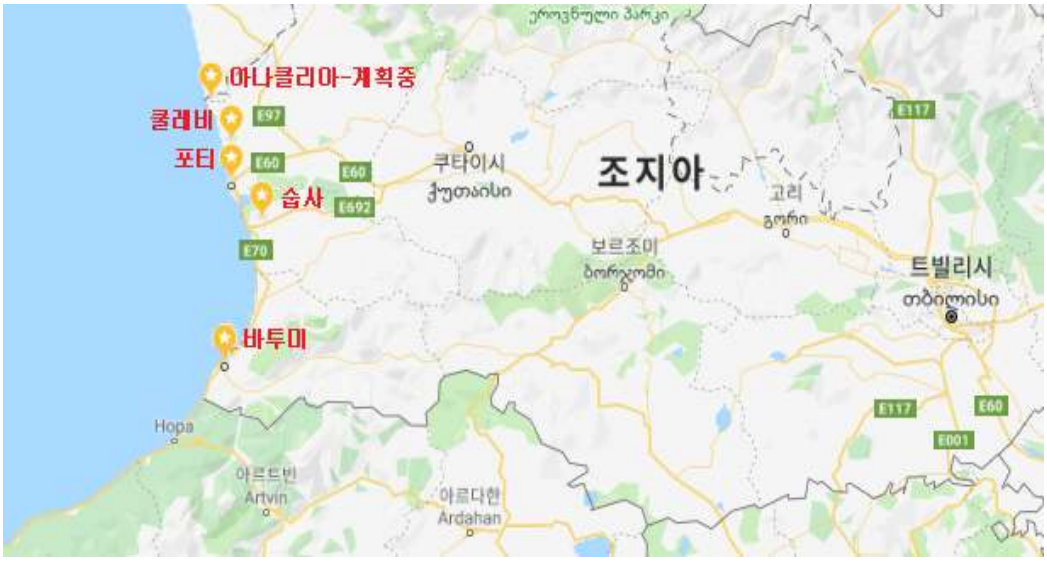
leehkun2010@gmail.com

조지아, 자국 항만 기항 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추진...물동량 증가 도모

- 7월 13일 조지아 제1채널은 조지아 해운국(Maritime Transport Agency of Georgia)의 자국 내 항만시설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보도했음
  - 감면혜택의 내용은 조지아 항만에 최초로 도착한 선박의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이 조지아 내 다른 항만으로 2차 이동을 할 경우 사용료의 절반이 면제되는 것임. 종래 규정에 따르면 조지아 내 기항 횟수와 관계없이 시설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했음
  - 조지아 해운국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자국 내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음
  - 한편 항만시설이용료는 입출항 선박의 배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280 ~ 1000 라리(lari, 한화 약 116,000~415,000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음

- 현재 조지아에는 4개의 항만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항만시설이 지니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4개 항만시설은 바투미(Batumi), 포티(Poti), 그리고 석유전용터미널 역할을 수행하는 숩사(Supsa), 쿨레비(Kulevi) 항임
  - 2019년 현재 기존 4개 항만 외에도 조지아 정부는 아나클리아(Anaklia) 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조지아 경제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항만 총 물동량은 670만 톤에 달했음
  - 한편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232,200TEU가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한 것임

조지아 주요 항만시설



자료: Google Maps 2019

참고자료 :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190713/245928186/Zakhodyaschim-v-porty-Gruzii-korablyam-predostavyat-lgoty.html(검색일: 2019년 7월 16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주요 통계

2019년 1~5월 러시아 연해주 주요 수출입품 구조

(단위: 천 달러)

연방관구	2019.01.01 ~ 2019.05.31					
	합계		해외		CIS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725,166.2	322,276.9	723,778.4	320,820	1,387.8	1,456.9
광물	305,198.8	20,319.2	304,937.9	20,282.4	260.9	36.8
연료 및 에너지	273,654.2	19,831.7	273,393.2	19,797.8	260.9	33.9
고무 및 화학 제품	19,013.3	177,928.9	18,200.3	175,543.7	813	2,385.3
원료, 모피 제품	29.3	5,142.7	6.5	4,994.9	22.8	147.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92,365.1	30,138	192,318.2	29,684.5	46.9	453.5
섬유 및 신발	495.8	76,246.2	357.1	74,760.8	138.7	1,485.3
금속 및 금속 제품	71,792.6	138,160.3	71,724.9	135,307.3	67.7	2,853
기계류	280,003.6	1,101,937	278,230.1	1,101,139.5	1,773.5	797.5
기타	63,696.2	120,365.2	63,339.2	119,821.7	357	543.5
합계	1,657,761	1,992,514.2	1,652,892.7	1,982,354.7	4,868.3	10,159.5

참고자료 : http://dvtu.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627:--------2019--&catid=293:2017-04-12-04-40-20&Itemid=311(검색일: 2019년 7월 16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